

언어영역

1

입니다.



없는 것은?

없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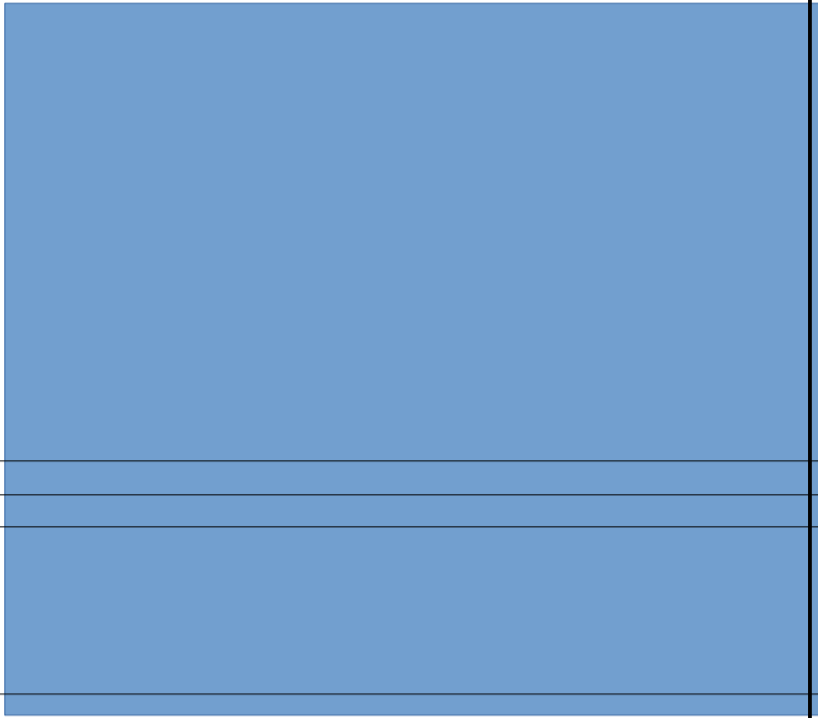
않은 내용은?

두 후보는 모두 학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다. 인터뷰 내내 두 후보는 서로에 대해 비판적이었지만, 기호 2번 윤수정 후보는 기호 1번 박동호 후보와의 차이를 드러내려 애쓴다는 인상이 역력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학생회 선거. 이제 학우들의 현명한 선택만 남았다.

않은 것은?



언어영역



아닌 것은? [2.2 점]

정부에서는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5만 원씩 장애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로 인한 소요 비용이 월 15만 8천 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이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다. 그나마 지급 대상조차도 1·2급의 중증 장애인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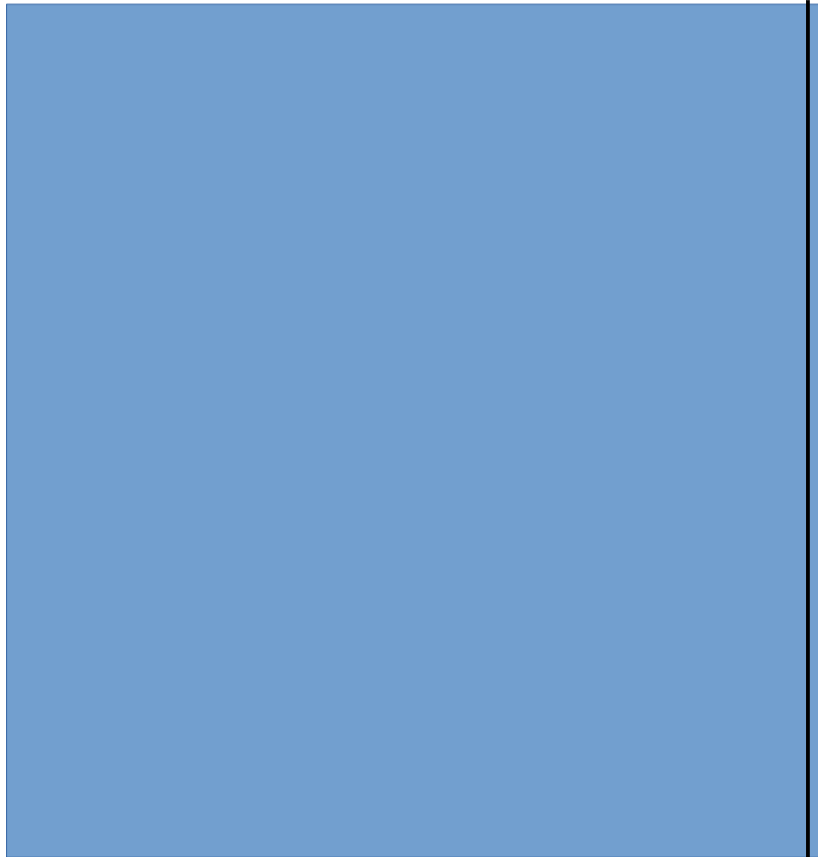
개 방식과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우리 같은 장애인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취업이 잘 안 돼요. 실제로 장애인의 63.8%가 취업 차별을 경험했다는 통계자료도 있잖아요. 정부에서 엄격하게 법으로 규제를 한다면 좀 나아질텐데... 또 설명 어렵게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직장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기가 힘들어요. 아무래도 우리 같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하지만은 않거든요."



언어영역

3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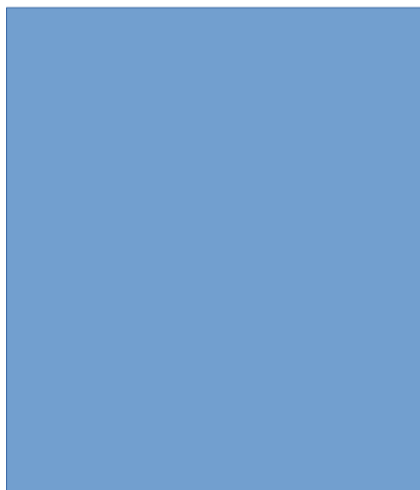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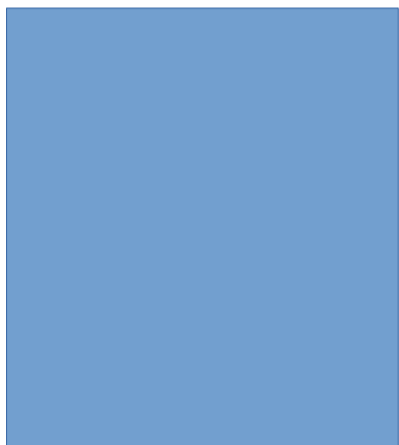
거짓된 미소는 사절
마음을 담은 미소는 환영
마음을 담은 미소로 우리 사회를 바꿔야 합니다.

당신이 미소 지으면 당신의 주위도 밝아집니다.
따스하게 퍼져 가는 햇살 같은
당신의 미소가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미소를 잃고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는 잃었던 미소를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따뜻한 미소는 힘든 하루의 일상을 견디게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당신의 미소를 보여 주세요.

한 것은?



이제 가볍게 미소 지어 보세요.
마음을 담은 미소

않은 것은?

사람들은 주어진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에 모든 관심과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목표 자체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 보지 않는 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다. 인간 소외 현상은 현대 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인간 행복 증진 효과에 도움을 주는지를 비판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잘못된 것은? [1.8 점]

언어영역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와 사회에서 정치 현상의 정당성을 담보해주는 근거로 이용되는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지향한다. 국민이 스스로 자신들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문제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우리가 내세우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접어들어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사회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국민들이 공공의 문제에 대하여 직접 참여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그 결과 대안으로 발전되어 온 것이 대의제라는 간접 민주주의이다. 모든 국민의 참여는 유보하는 대신 엄격하게 제도화된 과정을 도입함으로써 절차적 측면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대의제 민주주의이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보장하고 있는 이러한 절차적 공정성은 민주주의를 현대 사회에 반영하기 위한 대안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 중 하나인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완전하게는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취약성을 ㉠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국민은 정치로부터 소외되고, 결국 정치가 소수의 엘리트들의 전유물이 되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 오늘날의 민주주의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참여의 문제이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대의제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참여 제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고 있다. 급속한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에 의해 현대 사회에서 일상 생활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가고 있다. 은행 일을 보는 것이나 물건을 사는 것들이 모두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으며, 재택 근무도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급속한 사회 생활의 변화는 결국 사회를 조직하고 운영해 가는 정치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정치 원리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요즘 전자 정부와 전자 민주주의라는 개념으로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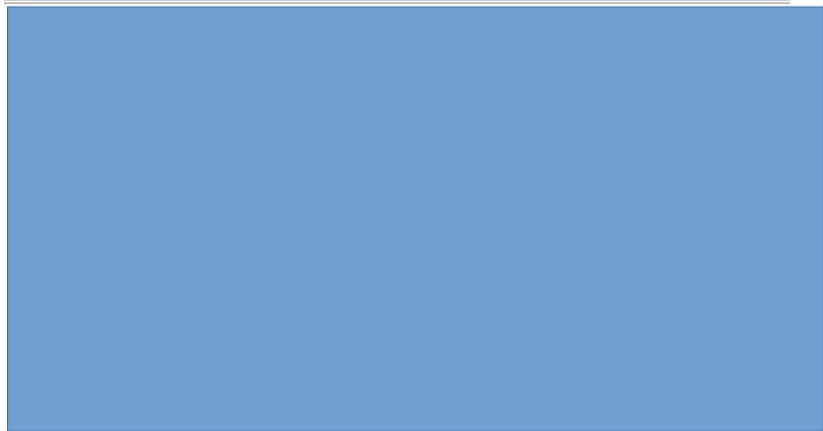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우리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토론과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고 있다. 또한 장차 집에서 편리하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민주주의가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정보에 대한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의 보장이라는 환경을 필요로 하는데, 오늘날의 비약적인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이것도 가능하게 해 주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의 이상은 기술적 환경만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시켜 줄 수 있는 반면에 우리가 전혀 바라지 않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을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정보 통신 기술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물적 자원 구축에 힘을 써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보 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의식과 자질이다. 자신의 의사와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와 정보를 대하는 성숙한 의식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만 정보 통신 기술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앞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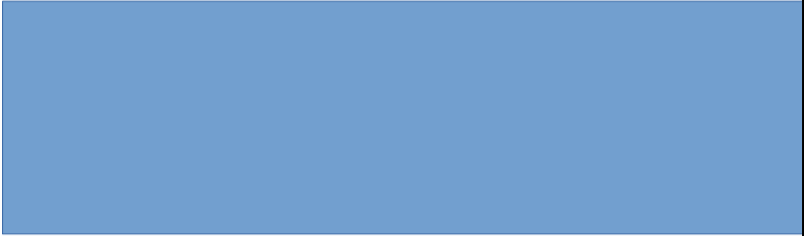
않는 것은?

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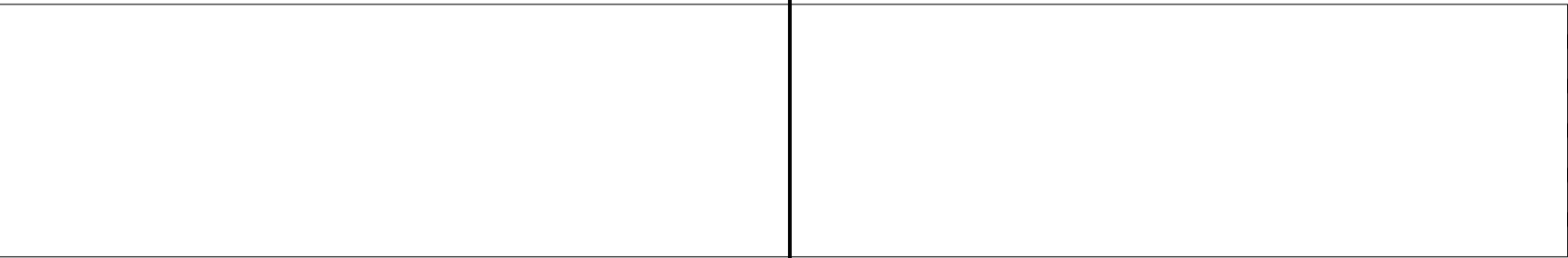
않는 것은?



언어영역



설데운 숙녕(?L)*에 빈 배 속일 뿐이로다.
 생애(??) 이리하다 ㉠ 장부 뜻을 옮길런가
 안빈(??) 일념(?s)을 적을 망정 품고 있어
 수의(??)*로 살려 하니 날로 좃아 서어*하다.
 - 박인로, 누항사((s)??) -



(가)
 풍상(??)이 섞어 친 날에 갓 피은 황국화(?r?)를
 금분(mf?)에 가득 담아 옥당(?b)*에 보내오니
 도리(??)*야 꽃인 체 마라 ㉠ 님의 뜻을 알괘라.
 - 송순의 시조 -

않은 것은?

(나)
 새로 거른 막걸리 젓빛처럼 뿌영고
 큰 사발에 보리밥, 높기가 한 자로세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응해야 소리 내며 발 맞추어 두드리니
 삼시간에 보리 낱알 온 마당에 가득하네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보이느니 지붕 위에 보리 티끌뿐이로다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 하러 벼슬길에 해매고 있으리오
 - 정약용, 보리타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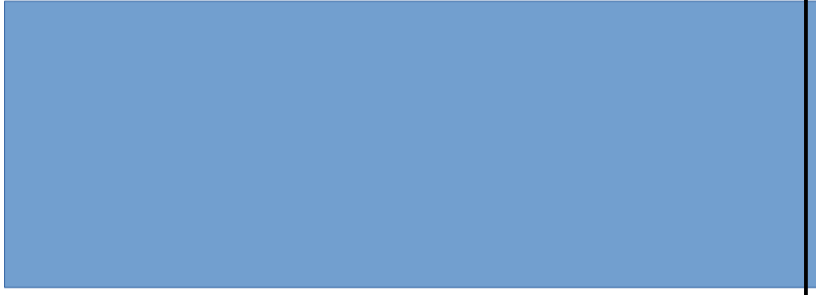
않은 것은?

(다)
 누항((s)?)* 깊은 곳에 초막(??)을 지어 두고
 풍조(??) 우석(??)*에 썩은 짚이 썩[?]이 되어
 서 홉 밥 닷 홉 죽(?)에 연기(?L)도 많고 많다.
 얼마만큼 받은 밥에 현순(?□) 치자(??)*들은
 장기 벌여 줄 밀듯 나아오니
 인정(??) 천리(??)에 차마 혼자 먹을런가

않은 것은?

언어영역

6



를 종합하여 이끌어 낼 수 있는 문제 의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2 점]



언어영역

7

아주머니가 먼저 노파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노파의 이상한 도리질에 대해 물을 수가 있었다.

"할머니께서 제가 몹시 못마땅하셨나 보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가 안방에 있는 내내 고개를 젓고 계셨어요."

"벌써 이십오 년 동안이나 그러고 계신 걸요."

"이십오 년 동안이나!"

나는 기가 막혀서 벌린 입을 못 다물었다.

"네, 이십오 년 동안이나 허구한 날 자는 시간만 빼놓고……."

나는 아주머니의 눈이 젖어 오는 것처럼 느꼈으나, 말씨는 침착하고 고즈넉했다.

<중략>

그것은 육이오 동란 통에 발작한 증세였다. 동란 당시 젊은 면장이던 그녀의 남편은 미처 피난을 못 가서 숨어 살아야 했다. 처음엔 집에 숨어 있었지만 새로 득세한 패들의 기세에 심상치 않은 살기가 돌기 시작하고부터는 집에 숨겨 놓는다는 게 암만해도 불안했다.

어느 야밤을 타 그녀는 남편을 집에서 이십 리쯤 떨어진 광덕산 기슭의 산촌인 그녀의 친정으로 피신을 시켰다. 시어머니와 그녀만이 알게 감쪽같이 그 일은 이루어졌다. 어떻게 된 게 세상은 점점 더 못되게만 돌아가 이웃끼리도 친척끼리도 아무개가 반동이라고 서로 고자질하는 것이 성행해,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일이 이 마을 저 마을에 하루도 안 일어나는 날이 없었다. 끔찍한 나날이었다. 이렇게 되자 그녀는 시어머니까지도 못 미더워지기 시작했다. 어리숙하고 고지식하기만 해 생전 남을 의심할 줄 모르는 시어머니가 행여 누구 꼬임에 빠져 남편이 가 있는 곳을 실토하면 어쩌나 싫어서였다.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살 세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공부 못하는 아이에게 구구셈을 익혀 주듯이 끈질기게 허구한 날 시어머니에게 '모른다'를 가르쳤다.

"어머님은 그저 모른다고만 그러세요. 세상 없는 사람이 물어도 아뻐 있는 곳은 그저 모른다고 그러셔야 돼요. 난리 나던 날 집 나가고 나선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딱 잡아떼셔야 돼요. ㉠ 입 한번 잘못 놀려 사람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세상이에요. 큰댁 식구들이나 작은댁 식구들이 물어도 그저 모른다고 그러셔야 돼요. 이뿐이 할머니가 물어도, 개똥이 할머니가 물어도 그저 모른다고 그러셔야 돼요. 아무도 믿으시면 안 된다구요. 네, 아셨죠? 어머님."

그녀는 힘차게 도리질까지 곁들여 가며 거듭거듭 이 '모른다'를 교습했다. 시어머니는 늘상 겁먹고 외로운 얼굴을 해 가지고 혼자 있을 때도 "몰라요, 난 몰라요." 하며, 역시 도리질까지 해가며 열심히 연습을 하는 것이었다.

난리가 났다고는 하지만 순박하던 마을 사람들이 무슨 도척*의 영신이라도 썬 것처럼 서로 죽이고 죽는 것 외에는 대포 소리 한 번 제대로 난 적이 없던 마을에 별안간 비행기가 날아와 기총소사와 폭탄을 실재없이 퍼붓고 앞산 뒷산에서 총소리가 며칠 계속해 쿵북듯이 나더니만 이어서 죽은 듯한 정적이 왔다. 집 속에 쥐 죽은 듯이

처박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조심조심 고개를 내밀었다간 재빨리 움츠러들었다. 아직은 서로의 대화를 꺼리고 있었다. 빨갱이가 물러갔다는 증거도 안 물러갔다는 증거도 없었다. 그쪽에 붙어서 세도 부리던 패거리들의 모습은 안 보였지만 인민위원회가 쓰던 이장집 마당 깃대꽃이엔 아직도 그쪽 기가 펠럭대고 있었으니 말이다.

이런 어중간하고 모호한 때에 벌써 성질이 급한 남편은 야밤을 타서 집에 돌아와 있었다. 서울이 이미 수복됐는데 제까짓 것들이 여기서 버티 봤댔자 며칠을 더 버티겠느냐는 거였다.

텃밭엔 이미 김장 배추를 간 뒤였지만 울타리엔 기름이 잘잘 흐르는 애호박이 한창 잘 열 찬바람내기였다. 아침 이슬을 헤치며 뒤란으로 애호박을 따러 나갔던 시어머니가 별안간 찢어지는 소리를 냈다.

"몰라요, 몰라요. 정말 난 모른다 말예요."

소름이 쪽 끼치고 간담이 서늘해지는 처참한 비명이었다. 그녀도 뛰어나가고 그녀의 남편까지도 엉겁결에 뛰어나갔다. 잠깐 아무도 분별력이 없었다. 저만치 뒷간 모퉁이에 패잔병인 듯싶은 지치고 남루한 인민군이 서너 명 일제히 총부리를 시어머니에게 겨누고 있었다. 그들도 놀란 것 같았다. 그들은 처음부터 누굴 해치려고 나타났다가보다는 그냥 시어머니와 마주쳤거나 마주친 김에 옷이나 먹을 것을 달랄 작정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말을 걸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꼼짝도 못하고 못박힌 채 고개만 미친 듯이 저으며 "몰라요, 난 몰라요."를 판사람같이 드높고 쉼된 소리로 되풀이했다. 패잔병 중 한 사람의 눈에 살기가 번뜩이는가 하는 순간 총이 그녀의 남편을 향해 난사됐다. 그녀의 남편은 처참한 모습으로 나동그라지고 그들도 어디론지 도망쳤다. 이런 일은 일순에 일어났다.

그 후 거의 실성하다시피 한 시어머니를 오랫동안 극진히 봉양한 끝에 어느 만큼 회복은 됐지만 그때 뒷간 모퉁이에서 죽길 기를 쓰고 흔들여 대던 도리질만은 그때 같은 박력만 가셨다 뿐 멈출 줄 모르는 고질병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도리도리 할머니라는 이 동네 명물 할머니가 됐다.

아주머니는 이런 얘기를 조금도 수다스럽지 않고 담담하고 고즈넉하게 했다.

"이젠 고쳐 드려야겠다는 생각보다 도와 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에요."

"도와 드리다니요? 어떻게요?"

"당신 임의로는 못 하시는 일이고,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삼시 잡숫는 거라도 정성껏 잡숫게 해 드리고 몸 편케 보 살피 드리고, 뭐, 그런 거죠. 대사업을 완수하시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거야 못 해 드리겠어요."

치매(?□)가 된 채 허구한 날 도리질이나 해대는 걸 '대사업'이라고 하는 아주머니의 농담에 웃으려다 말고 입을 다물었다. 아주머니의 태도가 조금도 농담 같지 않아서였다. 정말 대사업을 힘껏 보필하는 이의 사명감과 긍지로 아주머니의 얼굴이 은은히 빛나 보이기까지

언어영역

8

했다. 나는 어쩌면 이 아주머니야말로 대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 등골에 전율이 지나갔다.

- 박완서, 겨울 나들이 -

*도적 : 춘추 시대의 큰 도적. 몹시 악한 사람을 비유함.

얇은 것은?

얇은 것은? [2.2 점]

누를 황(?) 네 글자로 시작된다. 여기서 저자는 대낮의 하늘이 푸르다는 사실보다 밤하늘이 검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듯하다. 밤하늘은 왜 어두운가? 여기에는 무언가 우주의 깊은 신비가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하자. 그리고 별의 평균 수명을 T 라고 표시해 보자. 그렇다면 빛의 속도 c 에 우주의 나이 t 를 곱한 값 ct 는 우주 탄생 이후 빛이 움직인 거리가 된다. 만약 $t \ll T$ 라면, 즉 아직까지 죽은 별이 하나도 없다면 ct 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별들에서 나온 빛은 모두 관측자에게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ct 보다 먼 곳에서 출발한 빛은 이 관측자에게 아직 도착하지 않은 셈이다. 그러므로 반지름이 ct 인 구(+) 내부에 있는 별들만이 밤하늘에 보이는 것이다.

로 변해 버렸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관측자에게 도달한 빛을 발하고 있는 별은 cT 와 ct 사이에 있는 제한된 공간의 별일 따름이다. 그리고 cT 와 ct 사이에서 출발한 빛이 우리에게 도착한 순간에 이 지역에도 죽은 별이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우주의 나이가 별의 평균 수명보다 길든 짧든, 유한한 부피 내부에 있는 별들만이 우리의 하늘을 밝혀 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밤하늘의 밝기 역시 유한하게 될 것이고, 왜 밤하늘이 어두운지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안개 낀 날에 가로등을 보면 가로등 빛이 뿌옇게 흩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어두운 밤길에 전등을 비추면 전등에서 나온 빛이 진행하는 경로가 보인다. 이러한 현상들은 광원에서 나온 빛이 진행하다가 안개 입자나 공기 중의 먼지에 의해 산란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우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진다. 별과 별 사이에는 수소 기체나 먼지들이 있다. 이러한 성간 물질들에 의해 먼 별에서 출발한 빛은 지구로 오는 도중 산란되어 점차 그 빛의 양이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멀리서 오는 별빛은 지구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희미해지기 때문에 밤하늘은 어둡게 보이는 것이다.

언어영역

을 것이다. 그러나 별들은 지금도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으며 우주의 공간에는 여러 물질들이 존재하고 있기에 밤하늘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라는 두 글자 속에는 우주의 근본 원리에 대한 과학철학적 통찰이 깃들여 있는 것은 아닐까? 시인이 밤하늘을 바라보며 별들이 속삭이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듯이, 과학자들도 밤하늘의 어둠을 보면서 우주의 신비를 찾는다. 당연한 듯 보이는 사실에서 의미심장한 자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이 과학자의 권리요 즐거움이다.

* 원의 한가운데에 있는 점은 '관측자의 위치'임.
않는 것은?

않는 것은?

역사학은 객관성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나 역사 인식에는 주관의 개입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객관성이 위협 받는다는 데에 역사학의 고민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월쉬(W.Walsh)는 역사학자들 간의 견해 차이를 야기하는 주요한 주관적 요인으로 개인적 편견과 집단적 편견, 역사적 해석에 관한 이론과 세계관을 들고 있다. 이 네 가지 주관적 요인은 편견 과 개념적 체계로 단순화할 수 있다.

편견과 개념적 체계는 모두 역사 인식의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그 영향력이 같은 차원에서 작용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편견은 어떤 합리적 근거를 가지지 못한 견해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진리 획득을 방해하는 심각한 장애물이 된다. 그것은 사실의 인식을 왜곡시킨다. 따라서 역사학이 객관성을 추구하는 한 편견은 배제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그러나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개념적 체계는 사실의 특정한 측면이 우리에게 드러나도록 한다. 이는 인식의 왜곡이라기보다는 인식의 제한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러므로 편견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지만, 개념적 체계는 유지되어야 할 주관적 요인이다.

그러면 개념적 체계는 왜 유지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전지(??)한 신(?)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관점에서 사물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수한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고 어떤 개념적 체계에서 출발한다 할지라도 인식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근거 중의 하나는 개념적 체계의 기능을 손전등의 기능과 같이 우리의 관찰을 인도해 줄 뿐 왜곡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관찰의 출발점이 되는 개념적 체계에 대해서도

언어영역

11

반성과 비판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 깜깜한 밤에 ㉡ 어떤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 ㉢ 손전등을 비춘다고 가정해 보자. ㉣ 손전등의 강도나 각도에 따라 같은 사물이라도 우리에게 ㉤ 다르게 보일 것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사물 그 자체를 왜곡시켰거나 우리의 인식을 방해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은 아니다. 손전등의 밝기나 각도에 따라 사물이 다르게 보이는 것은 다만 사물의 다른 측면이나 국면이 드러났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손전등을 끈다면 사물을 더욱 전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보기는커녕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개념적 체계를 우리는 바로 이런 손전등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식의 출발점이 되는 개념적 체계에 대해서도 반성과 비판을 가할 수 있다. 이성이란 바로 이런 능력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것은 우리가 개념적 체계에 갇힌 죄수만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우리가 개념적 체계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죄수일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특수한 의미에서의 죄수라고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하려고만 든다면 언제든지 틀을 깨고 나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않은 것은?

모두 고르면?



호장(??)이 조선 국왕의 항서를 받고 세자 대군을 볼모로 잡아 들어갈새, 세자 대군이 내전에 들어가 하직한대, 중전(??)이 세자 대군의 손을 잡으시고 눈물을 흘려 서로 잡아 떠나지 못하는지라. 상이 세자 대군을 나오라 하사 눈물을 흘려 왈,

과인의 박덕함을 하늘이 밍게 여기사 이 지경을 당하게 되니, 누를 원망하며 누를 한하리오. 너희는 만리 타국에 몸을 보호하여 잘 가 있어라."

하시며 손을 차마 놓지 못하시거늘, 대군이 눈물을 흘리며 오열하여 아뢰어 왈,

"전하, 슬퍼하심이 무익하고, 신 등이 또한 무죄히 가니 설마 어이하리까. 바라옵건대 전하는 만수 무강하소서."

상이 슬퍼하심을 마지 아니하시고 학사 이영(??)을 부르사 왈,

"경의 충성을 아나니, 세자 대군과 한가지로 보호하여 잘 다녀오라."

하시니 세자 대군은 천안을 하직하시고 나오시며 망극하심이 비할 데 없는지라. 한 걸음에 세 번이나 엎드리며 눈물이 진하여 피 되니, 그 모습은 차마 못 볼러라.

내전에 들어가매, ㉠ 대비와 중전이 대성통곡 왈,

"너희들을 하루만 못 보아도 삼추(??) 같더니, 이제 만리 타국에 보내고 그리워 어찌하며, 하일(??) 하시(??)에 생활 고국하여 모자

않은 것은?

언어영역

[??] 조손(??)이 즐기리오."

하시고 통곡하시니, 좌우 시녀 또한 일시에 슬피 울더라. 대군이 아뢰어
왈,
"하늘이 무심치 아니하시니, 수이 돌아와 부모를 뵈오리니,
바라옵건대 낭량은 만수 무강하시고 불효 등을 생각지 말으소서."

하더라. 인하여 하직하고 췌문을 나서매, 장안 백성 등이 또한 울며
따르니, 길이 막히고 곡성이 처량하매 일월이 빛을 잃어 슬픔을 돕더라.
용골대 세자 대군을 앞세우고 모화관으로조차 홍제원을 지나 고양·
파주·임진강을 건너니 강물이 흐느끼는 듯하더라.
〈중략〉
어때는 정축삼월이라. 열읍(?)을 지나 의주 지경에 이르렀더라.
이때 임경업이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이면 높은 데 올라 호적
(??)의 음을 기다리더라. 문득 바라본즉 호병(??)이 승전고를 울리며
세자 대군을 앞세우고 의기양양하여 나오거늘, 경업이 분기 대발하여
절치부심(???)하며 소리하여 왈,
"이 도적을 편잡(?V)*도 돌려 보내지 말고 무찌르리라."
하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말에 올라 큰 칼 들고 나가며 중군에
분부하여,
"군사를 거느려 뒤를 따르라."
하더라. 호장이 정제히 나오는지라. 경업이 노기 충천하여 맞아 내달아
칼을 들어 호장의 머리를 베어 내리치고, 진중을 짓쳐 들어가
좌충우돌하여 호병을 베기를 무인지경같이 하니, 호병이 황겁하여 각각
헤어져 목숨을 도모하여 달아나고, 남은 군사는 아무리 할 줄 몰라 죽는
자가 무수하더라.
호장이 상흔 낙담(??㉔?)*하여 십 리를 물러 진을 치고, 폐잔군을
모아 의논 왈,
"경업은 용맹하니 장차 어찌하리오."
하더니 문득 생각하되, ㉕ '경업은 충신이라. 이제 조선 왕의 향서와
전교한 공문을 내어 보면 반드시 귀순하리라.'
하고 진문에 나와 외쳐 왈,
"임 장군은 나아와 조선 왕의 전지(??)를 받아 보라."
경업이 의아하여 크게 꾸짖어 왈,
"네 감히 나를 속이려 하느냐."
용골대 군사로 하여금 문서를 전하니, 경업이 문서를 받자와 보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는지라.
"너의 국왕이 항복하고 세자 대군을 볼모로 잡아가거늘, 네 어찌
감히 왕명을 항거하여 역신이 되고자 하느냐."
하고 만단 개유*하거늘, 경업이 하교를 보았는지라. 하릴없어 환도(?
ㄱ)를 집에 꽂고 호전에 통하고 들어가 세자 대군을 뵈옵고 실성
통곡하더라. 세자 대군이 경업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왈,
"국운이 불행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거니와, 바라건대 장군은
진심하여 우리 등을 구하여 다시 부왕을 뵈옵게 하라."
경업 왈,
"신이 이 기미를 알았으면 몸이 전장에 죽사온들 이런 망극하온 일을
당하리이까. 신의 몸이 만 번 죽사와도 아깝지 아니하오니,
바라옵건대 전하는 슬픔을 관역(I?)*하시고 행차하시면, 신이 진충

갈력(??→?)*하여 호국을 멸하고 돌아오시게 하오리다."
세자 대군 왈,
"우리 목숨이 장군에게 달렸으니, 병자년 원수를 갚고 오늘 말을
잊지 말자."
경업 왈,
"신이 비록 무재(??)하오나 명대로 하오리이다."
하고 하직할새, 경업이 용골대더러 왈,
"내 감히 군명을 항거치 못하여 너를 살려 보내거니와, 세자 대군을
수이 돌아오시게 하되 만일 무슨 일이 있으면 너희를 무찌르리라."
- 작자 미상, 임경업전(?T??) -

없는 의문은?

언어영역

않은 것은?

(가)

외출에서 돌아오니 어머님께서 빨간 고추를 넣어 말리고 계셨다. 별다른 땀돌 아래 펼친 돛자리 크기만큼 가득히 널린 ㉠ 새빨간 가을 열매를 만져 보는 순간 온몸에 끈적대는 땀기가 일순에 가셔지고 저절로 옷깃이 여며지는 이상한 충격이 왔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느새 가을은 벌써 와 있었고, 여름 또한 서서히 물러가고 있었구나. 황소뿔도 물러빠진다는 삼복 더위장대비를 맨살로 받아내고 나서 여기 한 생명이 그 성실했던 삶을 증명하러 내게 온 것이다.

이 가녀린 풀포기의 삶을 경영하도록 자연의 섭리는 위대하였고, 이에 순복하는 여름과 가을이 물러서고 나아가는 순리도 어김없었다.

곰팡내를 닦아 내고 가장 정직한 촛불을 밝힌다.

오다가다 길가에 돌아 자란 풀포기도 그 자신의 삶에 충실할 적에 나는 무엇으로 시간을 보냈던가? 도끼로 찍어 내어도 비명조차 없는 하찮은 초목도 꽃 피우고 열매 맺고 다시금 시고 뚫은 맛을 곰삭일 적에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에 나는 무슨 맛을 창조하고 있었는가? 풀썩의 잡초들이, 수풀 속의 풀벌레가 각자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면서도 이웃과 더불어 우정을 나눌 적에 나는 이웃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던가?

- 유안진, 가을에 열린 귀 -

(나)

나는 아까워서 아까워서 석류 한 개를 놓고 매일같이 바라만 보고 있다. 행여, 금이 나서 터진 그 속을 쪼개 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

보석 주머니 같은 이 석류 한 개를 구하기에 얼마나 많은 꿈을 꾸었나.

나는 그것이 꽃 피는 봄부터 비바람이 부는 여름 장마철 속에서도, 또한 ㉡ 샨말간 가을 하늘에 추석 달이 기울 때까지도, 얼마나 오랜 나날을 그리운 정으로 보고 싶고 갖고 싶은 꿈을 꾸었었나.

“할머니, 추석도 지나고 했으니, 이제 그 석류 하나 따 주세요 요.”

나는 석류나무집 할머니에게 이렇게 애걸했으나, 할머니는 또 더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언어영역

14

찬 서리를 맞고, 터져서 금이 나아 약이 되는 거지! 가래도 잘 삭고,
오랜 해수병엔 특효지. 몇 날만 더 참아요."

이렇게 한 해의 철이 다 기울어져서야, 끝내 구해 온 귀한 석류 한
개가 내 책상 위에, 내 눈앞에 고요히 놓여 있다.

〈중략〉

뜨거운 태양과 가을의 된서리 속에서 과피(·?)가 터질 때까지
정열을 간직하고, 또 터져 나온 그 기계(ㄷ ㄴ)의 참되고, 아름다운 결정
(??)이여.

나는 책상 위에 쪼개 놓은 석류 알들을 두루두루 바라보고 있다.

- 한홍구, 석류 -

없는 것은?

이질적인 것은? [1.8 점]

이라 - 류시화, 가을 유서 -
- 김현승, 가을의 기도 -

와 같이 탐구 학습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발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가)

말소리는 변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변하기도 한다. 또, 개인에 따라 발음을 달리하기도 한다. 말소리가 변하는 현상을 음운의 변화라고 한다. 이러한 음운의 변화를 더 자세히 구별하면 통시적(???)인 것과 공시적(???)인 것으로 나뉜다. 흔히, 통시적인 변화변천(???)이라 하고, 공시적인 변화를 '변동(???)', 또는 '변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통시적 음운 변화는 변화의 성격상 자생적(???) 변화와 결합적(???) 변화로 대별된다. 자생적 변화란, 음운 자체의 성격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변하는 것이며, 결합적 변화란 음운의 환경이나 음운이 결합되는 조건 등으로 말미암아 변하는 것이다. 공시적인 음운 변화도 마찬가지로 자생적 변동과 결합적 변동으로 나뉜다. 그러나 공시적인 변동의 경우는 대부분이 결합적 변동이고, 자생적 변동은 많지 않다.

결정적(=??) 변동수의적(???) 변동으로 나뉜다. 음운은 일정한 환경 아래에서는 예외 없이 일정한 음운으로 바뀌는 것이 있는데, 비음(??) 앞에 오는 /ㄷ/은 예외 없이 /ㄴ/으로 변하는 것이 결정적 변동의 예이다. 반면, 특수한 경우에만 바뀌는 것이 있는데, 불규칙 활용의 경우 음운 변동은 경우에 따라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하는데, 이는 수의적 변동에 해당한다.

(나)

음운 변화는 현저한 규칙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규칙성은 언어의 역사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업 원칙이 되어 왔다. 음운 변화는 흔히 조건(???) 변화와 무조건(???) 변화로 분류되어 왔다. 어떤 음의 변화가 그 인접어(???)의 영향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을 때 이것을 ㉠ 조건 변화라 하며 이런 조건 없이 일어나는 변화를 무조건 변화라고 한다. 조건 변화에는 동화(??), 이화(??) 등이 있다.

그 반대의 경우(역행 동화)가 있으며 또 이들 두 음이 서로 붙어 있는 경우(인접 동화)와 떨어져 있는 경우(원격 동화)가 있다. 국어에서 몇 예를 들면, 근대 국어에서 양순 자음 뒤의 'ㄴ'이 'ㄷ'로 변한 것은 순행 인접 동화, 중세 국어에서 'ㄴ' 위의 'ㄷ'이 'ㄴ'으로 변한 것과 근대 국어의 구개음화는 역행 인접 동화의 예이다. 이화의 예는 매우 드물다. 국어에서는 고대의 'ㅎ·ㄹ ㄹㄹ[??]', 'ㅁ·ㄹ ㄹㄹ[?]' 등이 중세 국어에서 'ㅎ·ㄹ·', 'ㅁ·ㄹ·' 등이 된 것이 이화의 예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음운 도치도 이화의 일종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조건 변화가 부분적임에 대하여, 무조건 변화는 전반적이다. 가령 중세 국어에서 전기와 후기 사이에 일대 모음 추이(???)가 일어난 것은 무조건 변화의 한 예이다. 한 음소가 분화하여 두 음소가 되든가, 두 음소가 합류하여 한 음소가 되든가, 음소들의 대립 관계가 새로워지든가 해서 음운 체계에 변천이 일어나는 것이다.

않는 것은?

않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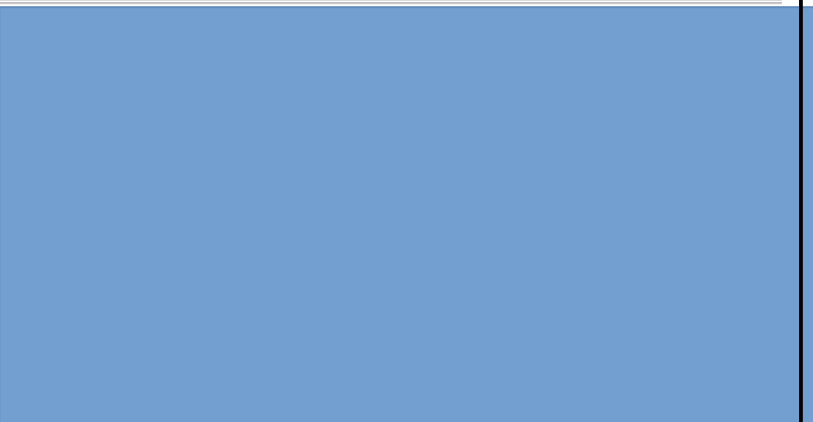
언어영역

(가) 망향(??)의 노래	신석정
한 이파리 또 한 이파리 시나브로 지는 지치도록 흰 복사꽃을	
꽃잎마다 지는 꽃잎마다 곱다랗게 자꾸만 감기는 서러운 서러운 연륜(ㄹ?)을	
늙으신 아버지의 기침소리랑 곤때 가신 지 오랜 아내랑 어리디어린 손주랑 사는 곳	
버리고 온 '생활(??)'이며 나의 벽차던 청춘이 아직도 되살아 있는 고향인 성만 싶어 밤을 새운다.	
(나) 초혼(??)	김소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 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i>이를 바탕으로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i>
붉은 해는 서산 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 가지만 하늘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다) 한(?)	박재삼
감나무쯤 되랴, 서러운 노을빛으로 익어가는 내 마음 사랑의 열매가 달린 나무는!	
이것이 제대로 받을 데는 ㉠ 저승밖에 없는 것 같고 그것도 내 생각하던 사람의 등뒤로 번어가서 그 사람의 머리 위에서나 마지막으로 휘드러질까본데,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안마당에 심고 싶던 느껴온 열매가 될는지 몰라! 새로 말하면 그 열매 빛깔이 전생(??)의 내 전(?)설움이요 전(?)소망인 것을 알아내기는 알아 낼는지 몰라! 아니, 그 사람도 이 세상을 설움으로 살았던지 어쨌던지 그것을 몰라, 그것을 몰라!	

않은 것은? [2.2 점]
(가)의 '복사꽃' - 떨어짐[㉠]: 소멸, 계절의 변화.
- 향토적인 소재.
(다)의 '감' - 익음: 열매, 오랜 세월의 축적.

않은 것은?



벽돌은 흙을 구워 만드는 재료인 만큼 그 유서도 깊다. "벽돌 두 장을 조심스럽게 올려놓기 시작했을 때 건축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축가가 있을 정도로 벽돌은 건축을 대변한다. 벽돌의 기본 의미는 '쌓음'에 있다. 벽돌을 쌓아서 이루어진 벽은 짐을 짊어 화면을 채워

나가는 그림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점묘파라 불리던 19 세기의 프랑스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 그들이 막상 이야기하려고 했다는 색채나 비례 이론을 다 떠나서 우선 보는 이를 압도하는 근면함이 화면 가득 묻어난다. 벽돌 건물을 보면 이처럼 그 차곡차곡 쌓아서 만들어지는 아름다움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다가온다.

㉠ 이 아름다움은 단지 벽돌을 쌓았다고 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쌓았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것도 얼마나 '조심스럽게' 쌓았는가를 보여 주어야 한다. 또한 벽돌 무늬를 인쇄한 벽지를 바른 것이 아님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 쌓음의 흔적은 줄눈*에 새겨진다. 건축가들은 시멘트 줄눈을 거의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의 깊이로 파낸다. 줄눈은 빛을 받으면서 그림자를 만들고 벽돌들이 '하나하나 쌓으면서 이루어졌음'을 확연히 보여 준다. 이처럼 벽돌 건물은 그 깊이감을 통해서 복잡하고 시끄러운 도심에서도 기품 있는 자태를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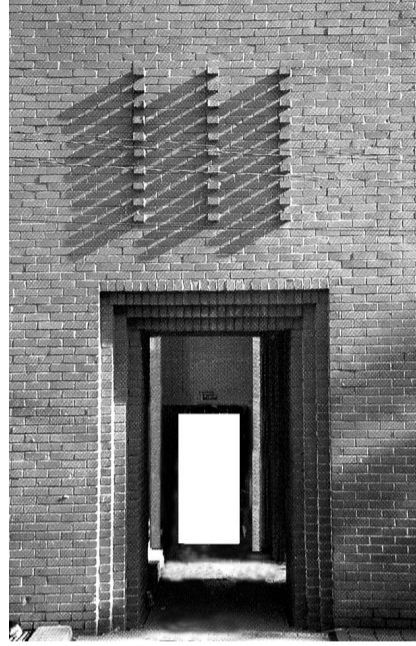
서울의 동숭동 대학로에는 차분한 벽돌 건물들이 복잡한 도심 속에서 색다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 건물들을 볼 때 느낄 수 있는 특징은 우선 재료를 잡다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건물의 크기를 떠나서 창문의 유리를 제외하고는 건물의 외부가 모두 한 가지 재료로 덮여 있다. 사실 ㉠ 솜씨가 무르익지 않은 요리사는 되는 대로 이런저런 재료와 양념을 쏟아 붓는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재료를 쓴들 적절한 불 조절이나 시간 조절이 없으면 범상한 요리를 뛰어넘을 수 없다. 재료 사용의 절제는 비단 건축가뿐만 아니라 모든 디자이너들이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막상 구현하기는 어려운 덕목이다.

벽돌 건물의 또 다른 예술적 매력은 벽돌을 반으로 거칠게 쪼갠 다음 그 쪼개진 단면이 외부로 노출되게 쌓을 때 드러난다. 햇빛이 이 벽면에 떨어질 때 드러나는 면의 힘은 가히 압도적이다. 일정하지 않게 생성되는 그림자가 이루어내는 조합이 쪼갠 벽돌의 단면과 어우러져 새로운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또한 벽돌을 쪼갤 때 가해졌을 힘을 고스란히 느끼게 해 준다. 이런 방식으로 지어진 벽돌 건물들은 텅텅함의 아름다움과 박력을 잘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건축가는 때때로 철거 현장과 폐허를 뒤져 뒤틀리고 깨진 벽돌만 모아서 벽을 만들기도 한다.

이처럼 건축에 있어서 재료는 단순히 물질적 속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방향을 규정한다. 건축가들의 재료 선택에는 그 재료의 물질적 속성 이외에 그 재료가 갖는 의미에 관한 성찰이 깔려 있다. 바로 이러한 성찰로 인해 건물은 단순히 쌓아 올린 벽돌 덩어리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생명체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생명의 깊이를 들여다보는 것 역시 감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언어영역

18



없는 것은?
